

Art

아트인컬처
June 2015

la Biennale di Venezia /
본전시 국가관 병행전시 리뷰
베니스를 빛낸 스타
경계 없는 '배틀 필드'
History 1895~2015

Artist /
김윤호, 실존의 풍경

Critic /
사진, '거짓'의 힘

세계로의 플랫폼

/ 호경윤 편집장



베니스비엔날레에 한국이 제일 처음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관을 건립한 1995년이 아닌 1986년부터다. 당시에는 독립된 공간이 아닌 이탈리아관의 일부(벽면 길이 20m)를 할애 받아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국미술협회의 주최로 커미셔너와 작가를 선정하고, 문예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42회(1986년)에는 작가 하동철, 고영훈과 커미셔너 이일, 제43회(1988년)에는 작가 박서보, 김관수와 커미셔너 하종현, 제44회(1990년)에는 작가 홍명섭, 조성묵과 커미셔너 이승택, 제45회(1993년)에는 작가 하종현과 커미셔너 서승원이 베니스에 갔다.

작품을 짚어진 채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도착해 설치를 겨우 마쳤던 작가 박서보와 하종현이 국가관 없는 '설움'을 뒤로 하고 27년 만에 참여 작가로서 베니스에 다시 발을 디뎠다. 외국인들은 베니스 시내 곳곳에 붙은 <단색화>전 포스터에 발길을 멈추고 "단, 썬크...와?" 약간은 어색한 발음으로 따라 읽으며 관심을 가졌다. 한국관 개막식 다음날 오후, 전시장 앞마당에서 열린 전시 오프닝 리셉션에는 국제 미술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큐레이터나 컬렉터가 한국에서 온 노화가들과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찍기 바빴다. 실질적으로 <단색화>전을 마련한 국제갤러리의 이현숙 대표는 이러한 풍경을 보면서 오프닝 날 내내 흡족한 미소를 머금으면서도, 기자들에게 한국미술을 세계화하려는 노력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제갤러리는 2007년 베니스비엔날레 때 병행 전시로 해외 갤러리와 공동으로 빌 비올라의 개인전을 연 바 있으며, 그 밖에도 한국관 전시 리셉션을 후원했던 경험을 통해 베니스가 국제 미술계에서 어떤 장소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

한국관이 개관했던 1995년, 병행 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 주최의 <호랑이의 꼬리>전과 무디마미술관 주최의 <아시아나>전을 통해 한국 작가들이 대거 소개된 바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2007년 이우환과 김아타의 개인전이 각각 열렸고,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의 <Who is Alice?>전이 개최됐다.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는 지난 20여 년간을 통틀어 가장 많은 한국 미술인이 베니스에 온 것 같다. 자르디니부터 아르세날레까지, 신진과 원로를 막론하고 다양한 장르의 한국 미술이 전 세계에서 온 아트피플을 맞이했다. 개인전을 개최한 김민정과 박병춘을 비롯, 그룹전 <Personal Structure>의 박기웅, 이명일, 이이남, 차수진, 한호, <Frontiers Reimagined>전의 김준, 전광영 그리고 <산수>전의 이매리 등이 출품했다. 또한 직접 전시를 기획한 <Sleepers in Venice>의 큐레이터 김승민과 참여 작가 강임운, 구혜영, 김덕영, 김우디, 이현준, 장지아, MR36, 그리고 <Jump into the Unknown>전을 주최한 미술그룹 '나인드래곤헤즈'까지... 베니스비엔날레의 병행 전시로 공식 인정 받기 위해서는 참가비를 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전시를 꾸리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대여, 재료, 인력 등)조차 세계 어느 도시보다 비싼 물가를 자랑한다. 그럼에도 베니스 입성을 꿈꾸는 사람은 계속 늘어 가는 추세다. (올해 공식 병행 전시는 43개, 기타 전시 및 이벤트는 78개로 집계됐다.) 베니스는 작가, 큐레이터, 컬렉터, 갤러리스트 등 직책에 상관없이 미술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서고 싶은 '세계로의 플랫폼'인 것이다.



〈단색화〉전 전시 전경
 위 · 하종현 〈Conjunction 72-25〉 200×100cm 1974
 왼쪽 · 박서보 〈Ecriture No. 55-73〉 195×291cm 1973
 오른쪽 · 이우환 〈Vestiges-A〉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5

왼쪽 페이지
 이이남 〈Reborn Light〉 LCD,
 물 90×90×520cm 2015





왼쪽 · 나인드래곤헤즈 <Jump into the Unknown>전 입구
오른쪽 위부터 · <단색화>전
개막식에서 작가 이우환과
해외 미술관계자들 /
<Sleepers in Venice>전
참여작가 및 큐레이터 / 작가
박서보와 하종현
아래 · 작가 한호

오른쪽 페이지
위 · 박병춘 <푸줏간> 수묵화
130장, 스틸파이프 2015
아래 왼쪽 · 김준 <Ebony-
Tiger> C-프린트 120×120cm
2013
오른쪽 · 장지아 <Song of
love> 350×550cm 2015